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 이영환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전남산 파프리카 美수출길 열렸다

일에 이어 美시장 개척...신선도 유지가 관건

전남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은 지난 19일 채소 및 과일 규정을 수정, 특정 조건하에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종 관련 법안은 22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달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측은 수입조건으로 ▲병충해가 없는 지정된 그린하우스에서 재배되고 ▲해충 없는 포장공장에서 포장되어야 하며 ▲생산지에서 포장공장을 거쳐 미 대륙에 수입되기까지 운송 중 감염을 막기 위해 방사성이나 플라스틱 타르 방수포를 덮어서 해충 없는

컨테이너에 포장할 것 등을 내걸었다. 미국 측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 물량을 붉은색 60~70%, 노란색 20~25%, 오렌지색 5~1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5kg 상자 60만 개에 해당하는 3백만kg의 파프리카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미국의 파프리카 생산량 76억kg, 수입량 45억kg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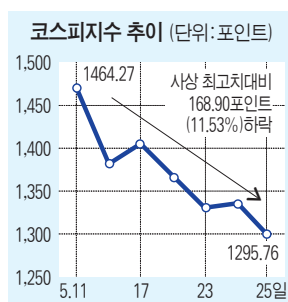
전남도는 파프리카의 경우 화순과 강진, 장흥 등 도내 10개 시·군 72개 농가에서 매년 3천400t(865만 달러)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물량이 일본으로만 수출되는 상태여서, 이번 미국의 수입허용 방침은 수출길을 다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미국의 수입허용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미국 현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수출된 파프리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등 세계 유수의 파프리카 생산국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파프리카 대미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 전남지사는 25일 화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에서 수출컨설팅 및 파프리카 착과관리, 병해충 방제에 관한 재배기술 강의를 개최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코스피 1300P 깨졌다

37.62P 폭락...1295.76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동시 매물 공세속에 심리적 지지선인 1300선마저 지키지 못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7.62포인트(2.82%) 내린 1295.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1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23일(1297.43) 이후 4개월여만으로 연중 최저치다.

특히 외국인인 지난 10일부터 12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 단일기간 순매도금액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간 매도한 금액은 3조4511억원이며 12일 연속 순매도는 사상 6번째 최장 연속일수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6.78포인트(2.63%) 내린 620.20에 마감해 지난 1월24일의 618.1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홍기석 증권조사 팀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월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 발표 이후 외국인인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며 그 이전에 본격 반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부재자투표 오늘 꼭 하세요”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25일 오전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광주시 북구 삼각동 삼일교회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거법 족쇄’ 기초의원 후보들 “이름이라도 알려야 할텐데”

희망의날 지방선거 D-5

중선거구제 따른 후보 난립 “누가 누구지?”

혼란스런 선거제도가 동네 살림을 책임지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선거를 가로 막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출 방식이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선거구당 출마자 수가 20~40명에 달해 유권자들이 단체장 후보나 광역의원 후보 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기초의원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물론,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혼란= 올해부터 기초의원 선출 방식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때문에 일부 선거구의 경우 15명 내외의 기초의원 후보가 난립하게 됐다. 또 선거구가 넓어져 주민에게 다가가기도 훨씬 어려워졌다. 광주 북구 중흥동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까지 포함, 모두 45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확성기와 엠프를 유세차량에 장착할 수 없는 대신 휴대용 확성기만 허용되는 규정도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권자도 혼란=이처럼 후보 홍보가 어려워지자 마라톤과 삼보일배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운동원 전원이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는 등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바뀐 선거제도가 유권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역구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 뿐 아니라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을 뽑아야 한다. 투표를 6번이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은 물론 이름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는 한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후보 2~4명을 한꺼번에 기표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선거보다 많은 무효표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시민 건강강좌 오늘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년새 0~4세 유아 24% 급감

성비 99.5...해방후 여성인구, 남성 첫 추월

2005 인구주택총조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400만 명에 진입해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0~

4세 인구가 5년 전보다 24% 줄어들면서 0~14세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20% 아래로 하락했다. 아울러 여성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남아 선 호도가 줄어들면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졌다. <관련기사 5면>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천727만9천 명으로 5년 전인 2000년의 4천613만6천 명보다 2.5%가 늘었다. 0~14세 인구는 963만9천 명에서 898만6천 명으로 연평균 1.4%가 줄었고 특히 0~4세는 매년 4.8%가 줄어 238만2천 명에 머물렀다. 15~64세는 3천369만 명으로 5년 전의 3천297만3천 명보다 연평균 0.4%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외국인 제외)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5년 전의 7.3%에 비해 2.0%포인트가 높아졌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희망의날 학과55년 역사만큼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새대로 갈 때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물가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1977-7900 FAX:198375-4802

한나라당 싹쓸이, 광주가 막아주십시오.

한나라당 집권, 민주당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 90만 상백도 민주당은 대안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광주에는 노골적인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광주가 막아주십시오.

민주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현명한 선택이 다시 한번 정당한 것입니다.

광주시민을 기인하는 정치구호, 이제는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한은 시리 막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후보

“물격있는 첨단경제도시 광주”

의자 광주!

초박빙과 함께, 광주를 활기칩시다.

일 걸리는 광주시장

1조영탁

기호